

명상 음악가 나왕케축 · 추키 내한 공연
7월 7일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강당



추키

첫 앨범에 달라이 라마가 제목
전통 음악에 현대적 요소 접목
민요 · 만트라 등 장르 다양

짜내는 듯한 고음의 티베트 전통 창법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동양적 정서를 잘 대변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추키.

■ 추키(Kelsang Chukie Tethong)는?

추키는 월드 뮤직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티베트 민족 음악을 알리는 대표적 뮤지션이다. 티베트 본토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의 다람살라에 망명했다. 특히 그녀는 달라이 라마가 1950년에 티베트 문화 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설립한 티베트공연예술협회(TIPA)에서 11년간 총과 성악, 악기 수업 등을 받으며 수석 졸업한 재원으로 티베트 국민 가수로 칭송 받고 있다. 매년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순회공연과 달라이라마의 생일 및 국제적인 티베트 행사에 참여하며 티베트 독립을 위한 음악 홍보대사로 활동하

티베트 공연 예술협회 수석 졸업
국민 가수 칭송, 홍보대사 활동

고 있다. 현재는 달라이 라마의 수석 비서 겸 장관인 남편과 함께 다람살라에서 호텔을 경영하며 살고 있다.

티베트 출신의 세계적인 명상 음악가인 나왕 케축(50)과 국민 가수 추키(48)가 한국무대에 나란히 선다. 호주에서 활동하다 최근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나왕 케축은 추키와 함께 인천불교청소년연합회(회장 선일 스님) 초청으로 7월 7일 오후 7시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성대수 대상 경협 청소년 선택 운영 기념 마넨 음악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6월 28일 안국동 탄트라 사무실에서 나왕 케축과 추키를 만났다.

자연의 고요한 울림

▲한국에서 몇번째 공연인가?

나왕케축 : 다섯 번째이다
추키 : 첫 번째다.

▲음반은 몇 개 정도 냈는가?

나왕케축 : 'Sound of Peace' 'Quiet Mind' 'In A Distant Place' 등 4개의 독립 음반과 키타로, 카를로스, 나가이 등의 공동 뮤지션들과 작업한 5개의 공동 음반을 발표했다.

추키 : 달라이라마가 음반 제목을 지어준 첫 앨범 'Voice from Tara' 와 'Where The Heart Blossoms' 등 2개가 있다.

▲음악 세계를 소개한다면?

나왕케축 : 음악은 메마르고 삭막해서 가는 세상에 평화와 자비를 주는 가장 힘있는 도구 중 하나다. 내 음악은 이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 듣는 이들에게 고요한 내면의 상태 즉 우주의 세계에 닿게 하려는 시도이다. 침묵과 명상은 우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추키 : 티베트 전통 음악에 현대적 음악 요소를 접목해 티베트 유목민의 삶이 담긴 민요에서부터 티베트 불교의 만트라(기원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

▲소재는 어디에서 찾는가?

나왕케축 : 밴드 플루트(일종의 대금)로 주로 연주하는데, 히말라야의 산과 계곡 등 자연에서 곡의 모티브를 따온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는 자연 만큼 좋은 것이 없다. 또 경건과 달라이 라마의 법문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한다.

추키 : 티베트 민속 노래의 종류는 다양하다. 자연과 산의 노래, 일할 때 부르는 노래, 스승에 관한 노래, 불교를 찬탄하는 노래 등 많다. 나역시 불교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른다. 단 어떤 노래를 부르든 짐짓 없애져 가는 티베트 고유 음악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려는 화두는 놓지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왕케축 : 나를 주제로 한 비디오 게임이 미국에서 출시됐다. 게임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내 이름의 버튼을 누르면 내가 들려주는 명상법과 음악을 통해 게임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진 게이머들이 마음을 고요히 가라 앉힌다는 컨셉이다. 일종의 명상 치유 프로그램이다. 올해 안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2-3개 정도 더 출시될 예정이다. 또 티베트 스님들의 명상과 불교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내년에 제작할 계획이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국제 콘서트도 몇 차례 가질 계획이다.

추키 : 이번 한국 공연이 끝나면 올해 9월 일본의 동경에서 열리는 '티베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공연한다. 그리고 음반을 통해 티베트의 전통과 현대적 음악을 접목하는 시도를 계속할 예정이다.

글=김주영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나왕 케축

자연 · 불교 · 법문에서 영감 얻어
밴드 플루트 이용 내면세계 표현
명상 게임,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

'음악은 다양한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란 생각을 가진 나왕케축은 사찰 · 교도소 · 콘서트장 등 어디든 찾아가 내면의 음악을 전한다.

■ 나왕 케축(Nawang Khechog)은?

달라이 라마의 사상과 티베트의 문화를 음악으로 전 세계에 전하는 문화 전도사. 11년간의 승려생활과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은둔자 생활을 하다 음악가로 변신, 티베트의 전통적인 악기를 이용한 음악을 널리 알린 최초의 티베트 음악가다. 지금까지 모두 10여장의 음반을 발표했으며 3차례나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또 영화 '쿤둔'의 영화음악을 맡았던 필립 그래스와도 음악적 교류를 하고 있

며, 브래트 피트가 주연한 영화 '티베트에서의 7일'의 영화음악을 맡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89년 달라이라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식에

승려생활 후 음악가로 변신
영화음악 제작으로 유명

서 축하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던 나왕케축은 96년부터 매년 열리는 티베트 독립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부처님의 법음이 넘치는 룬장(輪藏) **묘음 법륜장(妙音法輪藏)**



사용법

묘음 법륜장 전면에 사람이 2M이 내 접근시 인체감지센서가 감지하면 전자회로가 작동, 예림제 종소리(3번)와 새소리, 바람소리가 발생과 동시에 목탁소리가 함께 반야심경(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 법패작법보유자 김능화 스님)독송이 울려 퍼진다. 이때 여의주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1분 1회)LED전구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5색의 찬란한 빛이 여의주표면 글자에 비춰지며 화엄경의 상단부분에 불꽃형상이 나타난다. 작동시간은 4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감지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재작동을 반복한다.

* 본 제품 음성칩은 원하는 음성을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묘음 법륜장 개금 W 1,089,000 → 864,000
묘음 법륜장 청동 W 669,000 → 430,000

30대 특별할인 한정판매

판매처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숲속의 철 육지장사 특별수련회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산사축제

명상과 소리의 만남 락 페스티벌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광화문, 승용차 45분거리) 숲이 우거지고 산세 소리 끊이지 않는 백옥으로 장엄된 도리산 육지장사에서는 도심인의 되풀이되는 일상생활속에서 심적 불안과 갈등, 온갖 스트레스로 지든 삶을 한순간이라도 정화하기 위한 특별한 여름휴가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수련회!
고요적정해하려는 명상과 시끌벅적 요란한 락뮤직의 만남!
어찌보면 극과 극의 대립이지만 이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인 인간적 깨달음에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동참하시어 마음의 번뇌로부터 오는 고통과 육체적 긴장에서 해방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행운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련일시 : 2004년 7월 31일(토) 오후 2시 ~ 8월 1일(일) 밤 10시
● 장 소 : 도리산 육지장사(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 프로그램 : · 제1부 - 명상 · 관행수행
· 제2부 - 젊음이 폭발하는 락 페스티벌공연 (공연은 무료, 누구든 참석 가능)
7월 31일(토) 밤 8시 ~ 10시(출연진 : 가이아, 베베, 블랙홀) 선 무용단 이선옥교수와 그제자
8월 1일(일) 밤 8시 ~ 10시(출연진 : 보리즈, TO, 블랙신드롬) 선 무용단 이선옥교수와 그제자
● 수련동참금 : 삼민원(숙박 수련생에 한함)
계좌번호(하나은행 110-082213-00105 예금주 삼보사)
● 인 원 : 150명(숙박 수련생 선착순 접수)
● 문 의 : 031)871-0101(육지장사), 02)352-6406(삼보사)
홈페이지 www.yukijangsa.org (한글도메인 육지장사)